

프랑스, 2040년까지 1,000억 유로 투자...

철도망 현대화·광역철도 확대 추진

해당국가	프랑스	기관(기업)	Île-de-France Mobilités	동향분야	정책	국토교통 기술분류	철도교통
------	-----	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	----	--------------	------

□ 파리 광역권 교통당국은 2026년 철도 인프라 현대화 사업에 약 38억 유로(약 5.2조 원)를 투입하고 노후 차량 노선 개선을 통해 정시 운행 안정성과 대응 능력 강화 추진

- 신형 차량 도입과 주요 노선 시설 개량을 중심으로 광역철도 서비스 운영 안정성 강화
 - 8개 메트로 노선에 신형 MF19 차량을 도입하고 파리권 광역급행철도(RER*) C 노선의 시설 개량과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정시 운행 안정성과 운영 효율 개선
 - * Réseau Express Régional: 파리 도심과 외곽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
 - RER B 노선은 신형 MI 20 차량 투입을 준비하고, RER D 노선은 신형 RER NG 차량 도입과 정비센터 현대화 사업을 함께 추진
- 대규모 시공·갱신 사업을 통해 유럽 최고 수준의 혼잡도를 보이는 주요 노선의 운영 안정성과 수송 효율을 높이며 철도 서비스 대응 체계를 강화
 - 여름철 일부 운행 중단 기간에 진행되는 대규모 공사를 통해 RER A 나시옹역 등 주요 환승 거점의 시설 개량과 노후 설비 개선 추진
 - 그랑 파리 익스프레스(15·16·17·18호선) 확대 계획에 맞춰 장기 차량 교체와 철도 인프라 갱신 사업을 함께 추진하며 광역철도 운영 체계 현대화 병행

□ 프랑스 정부는 2040년까지 약 1,000억 유로(약 136조 원) 규모의 국가 철도 투자 계획을 추진하며 노후 철도 기간망 개선과 화물 운송 비중 확대

- 기존 철도 노선의 성능과 운영 안정성 개선을 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철도망 현대화를 위한 재정 투입 확대
 - 2027년부터 노선 재생 예산에 연간 10억 유로를 추가 투입하고 철도 현대화 예산도 연간 5억 유로 수준까지 확대 예정
 - 평균 사용 기간이 약 30년에 이르는 노후 철도 인프라를 개선해 전체 철도 교통량의 약 90%를 처리하는 핵심 기간망의 운영 성능 회복 추진
- 지방 대도시권 광역급행철도(SERM*) 확대와 철도 시장 개방 정책을 통해 친환경 기반의 지속가능한 철도교통 체계 구축 추진
 - * Services Express Régionaux Métropolitains: 파리 외 주요 도시권에 도입하는 광역급행철도
 - 파리 외 주요 도시권으로 광역급행철도 확대를 위해 2027년까지 7억 유로(약 9,500억 원)를 별도 편성하고 지역 간 철도 연결성 강화
 - 철도 시장 개방으로 트레니탈리아·렌페 등 신규 사업자 진입이 확대되며 통행료 수입 증가분을 철도망 현대화 사업에 재투자 예정

※ 출처 : RAILWAT PRO(2025.11.28.), Paris region earmarks EUR 3.8bn for major rail works in 2026